

성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관련 인식의 차이: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영아¹, 강혜경^{2*}

¹제주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간호연구소, ²중부대학교 간호학과

Differences in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witnessing experience; for military personnel

Young A Kim¹, Hyekyung Kang^{2*}

¹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군 종사자에 대한 평소 성폭력 인식, 성별 의식, 성폭력 이차 피해 인식 및 사회적 효능감을 성폭력 목격 경험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동료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후방 지역에 근무하는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조사 플랫폼을 이용한 설문을 2023년 6월 1일부터 9월 29일에 23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χ^2 test, Pearson 상관분석, 그리고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는 성폭력 인식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p < 0.01$),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군에서 성폭력 인식은 성별 의식($r = 0.38, p < 0.05$)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r = 0.58, p < 0.001$)에서, 성별 의식은 이차 피해 인식($r = 0.08, p = 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군은 비경험 군에 비하여 성폭력 관련 인식이 1.20배($p = 0.042$), 이차 피해 인식은 2.15배($p = 0.017$)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1.21배($p < 0.05$)로 높았다. 이에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직장동료의 주변인 및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하며, 군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군의 지속적인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o by comparing military workers' sexual violence awareness, gender consciousness, perception of secondary damage of sexual violence and social self-efficacy according to whether they have witnessed sexual violence or not, influencing factors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colleague' intervention were. 234 people were analyzed using a survey platform from June 1, 2023 to September 29, 2023, using a snowball sampling targeting military personnel working in front and rear area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the χ^2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ose who had witnessed sexual violence or not in terms of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social self-efficacy($p < 0.01$). Experience of witnessing sexual violence was correlated with gender consciousness ($r = 0.38, p < 0.05$) and social self-efficacy ($r = 0.58, p < 0.001$), and gender awareness was correlated with secondary victimization ($r = 0.08, p = 0.01$). Compared to the group without experience witnessing sexual violence, the group that the experiences had 1.20 times higher awareness of sexual violence($p = 0.042$), 2.15 times higher secondary victimization($p = 0.017$), and 1.21 times higher social self-efficacy($p < 0.05$).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witness program that can serve as bystanders and witnesses to co-worker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continuous related education is needed who can expect to play a social role as military workers.

Keywords : Bystander, Colleague, Intervention, Sexual Violence Awareness, Witness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Hyekyung Kang(Joongbu Univ.)

email: kanghk@joongbu.ac.kr

Received November 15,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Revised December 4,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폭력은 기본 인권과 관련된 주요 사회문제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와 직장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다[1]. 성폭력(Sexual violence)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에 관련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2,3]. 성폭력 유형에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는 불안과 우울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으며 오랜 기간 고통스러워한다[4,5].

특히 일반사회와 분위기가 다른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은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넘어 군 조직의 사기와 분위기를 위협하고 있다[6]. 하지만 군대는 대부분의 사건 및 사고를 군 조직의 사기와 보안의 이유로 드러내 밝히지 않는 특수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시선을 가지고, 피해자와 동료들을 위해 사건을 조용히 덮고 가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7]. 2020-2021년도에 신고된 군 성폭력 사건은 771건이었으며, 군 종사자 기준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 상급자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임용된 지 5년 미만의 여성이었다[8,9]. 그리고 군 성폭력 피해자 신고율은 32.7%로 사건 특성상 일반적인 암수율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8,10]. 이 낮은 신고율은 군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관의 회유가 많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따돌림, 진급 및 누락 등 유무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조직 내 평판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8,11,12].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성폭력 발생 위험 때에 동료는 주변인이자 동시에 목격자가 된다. 그 상황을 인지한 동료가 적극적인 주변인 역할을 수행 시 단순한 증인이 아닌 성폭력 등의 발생 위험 행동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자가 되어 성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13,14]. 하지만 군인 또는 체육 관련 종사자들과 같은 계급 또는 위계적 선후배 사이에서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직장은 다른 어느 직장보다 더 폐쇄적이고, 직위나 직급에 따라 위계질서가 강하며, 남성 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성폭력 피해자의 보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한계가 있다[10,15,16]. 더구나 훈련, 임무, 진급, 부대 이동 등을 결정하는 위치

에 있는 상급자가 성별을 떠나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인 군대의 성폭력 사건은 개인 또는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이 제한된다[8,10]. 이에 군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중심의 접근보다는 조직의 특수성과 환경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의 공동체적 역할에 중심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7,17]. 따라서 군대 내 성폭력 예방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및 사건 후의 보호에서 평소에 동료 중심의 개입에 대한 예방적 전략이 필요하다[18-20].

이를 위해 적극적인 주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발생 위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성별 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갖추어져야 한다[21]. 그리고 군 종사자의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효능감과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내면의 긍정과 존중감이 있을 때 그 역할 수행 또한 가능하다[22]. 즉,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성폭력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평소의 성별 의식 및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인식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장동료를 보았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동료는 군 성폭력 발생 위험에서 적극적인 주변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23]. 하지만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을 주변 즉, 동료들조차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24],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방치하는 것이며, 군 조직의 측면에서는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져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등 결국 부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7,9].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목격 경험 유무에 따라 군 종사자의 평소 성폭력 인식, 성별 의식, 이차 피해 인식 그리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비교 분석하여 적극적 주변인으로서 동료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군 관련 교육 방향과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 종사자의 성폭력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성폭력 인식, 성별 의식, 성폭력 이차 피해 인식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을 탐색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9월 29일에 걸쳐 본 연구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 과 참여한 대상자들의 소개를 이용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온라인 설문 플랫폼 주소를 전달하였다. 설문 플랫폼에 접속한 대상자가 연구에 대한 안내설명문을 읽고 희망에 따라 참여 동의를 선택하면 설문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 이용, 독립표본 t-test 분석방법, 양측검정, 중간효과 크기 .5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210명 이었으며, 성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목격하지 않은 집단은 각각 105명으로 산출되었다. 전체 응답자들에서 성폭력 목격 경험 유무 항목을 확인하여 목격 경험이 있는 군 종사자의 수가 최소 110부 이상이 충족될 때까지 자료수집 기간을 지속하였으며, 최종 249부가 모집되었다. 이중 불충분한 응답자 15명을 제외한 23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경제 상태, 군에서의 성 관련 교육 참여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2.3.2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인지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그 행위가 성폭력 인지를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의 19세 이상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성폭력 관련 인식도를 사용하였다[2]. 해당 도구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등과 같은 성폭력 인식에 대한 10개 문항과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 촬영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등의 데이트 폭력 및 사이버 성폭력 문항이 포함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보고서에는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2 였다.

2.3.3 성별 의식

성별 의식은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 검사 축약형을 사용하였다[25]. 요인별 2개의 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성평등, 여성 권리 요구,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 규범 및 부계 중심적 가족 제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성평등 태도에 관한 내용이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에 대한 성평등 의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75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2.3.4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부대 내 성폭력 발생 위험 당시 목격 경험을 묻는 것으로, 2019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성희롱, 성추행 등의 부대 내 위험 행동에 대한 목격 경험 및 목격 후 개입 정도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10]. 보기 응답에서 “목격한 적 없다”를 선택한 대상자를 비목격자로, “그 자리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일상적인 일이기에 조치는 필요 없었다”,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 중에서 한 개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를 목격 경험자로 하였다.

2.3.5 성폭력 이차 피해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이차 피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명진 등이 개발한 이차 피해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26]. 총 14개 문항이 피해자 비난, 의심, 합의 종용, 피해자 감수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이차 피해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88 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9였다.

2.3.6 사회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이 특별한 상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느끼고 내린 판단을 의미한다[27].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주변의 도움 또는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과 관련한 자신의 개입으로 타인을 도왔다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정의한 후 도움행동과 관련하여 타당화 검증을 마친 Kang과 Kim의 도구를 사용했다[28]. 총 8개 문항이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와 관계는 χ^2 test, t-test 및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성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특성 비교를 위해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JIRB-202204180-01-220422)을 받았으며, 자료의 부호화 관리 및 잠금장치 보관함 3년 후 파일 폐기가 설문 전 설명되었다.

3. 연구 결과

3.1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대상자 특성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성별은 목격 경험이 있는 군에서는 여성이 77명(73.3%)으로 가장 많았고, 목격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남성이 81명(62.8%)로 많았으며,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p < 0.05$). 연령은 목격 군에서 30대가 38명(36.2%), 비 목격군에서 40대가 49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두 군 모두 기혼자가 많았으며, 연령과 결혼상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 수준에서는 두 군 모두 대졸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대 졸업 순이었으며, 목격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01$). 동거 상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경제 상태는 중 정도의 수준이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에서는 성폭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main variables (N=234)

Variables	Categories	Total (n=234)	Experience of witnessing-Yes (n=105)	Experience of witnessing-No (n=129)	t or χ^2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Female	137 (58.5)	77 (73.3)	48 (37.2)	12.39 *
	Male	97 (41.5)	28 (26.7)	81 (62.8)	
Age (year)	≤29	85 (26.9)	33 (31.4)	35 (27.1)	22.29
	30-39	98 (31.7)	38 (36.2)	35 (27.1)	
	40-49	36 (24.1)	29 (27.6)	49 (38.0)	
	≥50	15 (17.3)	5 (4.8)	10 (7.8)	
Marital status	Married	138 (59.0)	65 (61.9)	80 (62.0)	0.89
	Single	96 (41.0)	40 (38.1)	9 (38.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5 (14.9)	13 (12.4)	11 (8.5)	8.34***
	College	83 (35.4)	38 (36.2)	45 (34.9)	
	University	95 (40.5)	50 (47.6)	70 (54.3)	
	≥Graduate school	21 (9.2)	4 (3.8)	3 (2.3)	
Living arrangements	Alone	85 (36.4)	40 (38.1)	42 (32.5)	24.18
	With family	108 (46.1)	45 (42.8)	58 (45.0)	
	With other	41 (17.5)	20 (19.1)	29 (22.5)	
Economic condition	Low	58 (24.7)	31 (29.5)	36 (27.9)	6.89
	Middle	162 (69.4)	71 (67.6)	85 (65.9)	
	High	14 (5.9)	3 (2.9)	8 (6.2)	
Education in the Military	Yes	218 (93.1)	99 (94.3)	115 (89.2)	1.57
	No	16 (6.9)	6 (5.7)	14 (10.8)	
Sexual violence awareness		26.45 ± 5.38	23.33 ± 3.82	31.44 ± 6.03	7.14**
Gender consciousness		22.67 ± 5.33	21.32 ± 7.55	26.12 ± 3.54	5.16
Secondary damage perception		26.88 ± 4.25	27.25 ± 7.78	25.99 ± 6.25	1.41
Social self-efficacy		28.88 ± 6.74	27.98 ± 7.60	31.4 ± 3.44	2.44**

Note.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Correlation among sexual violence awareness, gender consciousness, secondary damage perception and social self-efficacy (N=234)

Variables		1. Sexual violence awareness	2. Gender consciousness	3. Secondary damage perception	4. Social self-efficacy
		<i>r</i> (<i>p</i>)			
Experience of witnessing-Yes (n=105)	2	0.38 (<.05)			
	3	0.18(.165)	0.08 (0.01)		
	4	0.58 (<.001)	-0.16 (0.322)	0.55 (0.233)	
Experience of witnessing-No (n=129)	2	0.12 (<.05)			
	3	0.17 (.122)	0.15 (0.138)		
	4	0.12 (.022)	0.11 (0.125)	0.66 (<.01)	

Table 3. Odds ratio on sexual violence awareness, gender consciousness, secondary damage perception and social self-efficacy according to experience of witnessing sexual violence (N=234)

Variables	Odds ratio	95% CI*	<i>p</i>
Sexual violence awareness	1.52	1.05-2.13	0.042
Gender consciousness	1.74	0.13-2.12	0.321
Secondary damage perception	2.15	0.76-3.05	0.017
Social self-efficacy	1.21	0.51-2.23	<.05

*Confidence interval

의식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Table 1).

3.2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에 따른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군에서 성폭력 인식은 성별 의식($r=0.38, p<.05$)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r=0.58, p<0.001$)에서, 성별 의식은 이차 피해 인식($r=0.08, p=0.0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 비 경험군에서는 성폭력 인식과 성별 의식($r=0.12, p<.05$), 성폭력 인식과 사회적 자기효능감($r=0.12, p=0.022$), 그리고 이차 피해 인식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관계가($r=0.66,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2).

3.3 상황 목격 경험에 따른 주요 변수의 교차비

성폭력 인식, 성별 의식, 이차 피해 인식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관련 인식은 1.20배($p=0.042$), 2차 피해 인식은 2.15배($p=.017$),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1.21배($p<.05$)로 성폭력 상황 목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의식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성폭력 위험 행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료의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에 따른 성폭력 관련 인식, 성별 의식, 이차 피해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성폭력 관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성폭력 관련 인식은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군과 비경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관련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이 비목격 경험군에 비해 1.52배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이 일어나는 부대 내에서 동료의 개입은 성폭력 상황에 대한 위험 행위로 해석할 만한 상황을 주변 동료가 인식하는지의 목격 경험에서 출발한다[16,23]. 주변인이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위험하다고 해석하며, 개입의 책임감을 느끼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결정한 후 행동에 착수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단계를 거친다[29]. 따라서 주변인이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황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황에 개입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또는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개입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18]. 따라서 성폭력 상황의 목격 경험 유

무는 평소의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대 내 인식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폭력 상황 목격 유무에 상관없이 성폭력 인식과 성별 의식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의 주 구성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한국 군대의 성폭력이 주로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평소 군대 조직의 성별 의식 정도가 성폭력 발생과 목격 개입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30]. 남성이 다수인 직장에서는 남성 가해자와 같은 젠더 정체성의 소속감으로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31]. 심지어 여성 피해자에 대한 남성 동료의 도움 행위는 같은 남성들로부터 남성성에 대한 흠집으로 여겨질까 우려해 성폭력 위험 상황을 목격했어도 못 본 척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발생한다[17,18,30].

이어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성별에서 목격 경험이 있는 군은 여성이, 목격 경험이 없는 군은 남성이 많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상황의 공감 인식이 주변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유사한 성폭력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이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적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32,33]. 이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변인의 행동 개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는 목격한 동료들의 개입을 결정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대 내 동료 개입에 대한 접근과 목격자 훈련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이 있는 군에서는 성별 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 인식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는데($p=0.01$),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남성들은 가해 남성에 대한 감정을 이입을 하고, 남성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34]. 군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군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이고, 피해자가 비중이 적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녀 성별에 대한 주류 집단의 인식은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집단의 사회적 분위기로 이차 피해 인식을 만들 수 있다[31,35]. 2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이고, 이러한 2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가 감춰지는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26]. 따라서 목격에 따른 동료의 개입 결정은 조직의 성 관련 문화적

인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평소 남녀의 성별 의식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 인정과 사회적 기대와 관련이 있다[28]. 특히 직장동료는 내가 소속된 조직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사람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더욱이 군의 동료는 유사시 국가를 위해 서로를 보호해주며 생존을 함께하는 전우와 동료로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정과 기대치가 높다[36]. 본 연구에서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군과 비경험군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이 비목격 경험군에 비해 약 1.21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27]. 따라서 성폭력과 같은 위험 상황에 있는 동료의 개입은 타인을 돕는 행위로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 궁극적인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37].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군과 비경험군 따른 군 동료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료의 도움과 관련한 성폭력 목격 상황에서 눈앞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며, 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 예방에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38,39]. 이는 궁극적으로 군의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군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효능감을 보다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군대 내의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군 동료는 주변인 및 목격자로서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부대의 성폭력 관련 인식, 성별 의식, 군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향상을 위한 교육 방향에 부합하는 목격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군 종사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군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자료수집 기간이 길어 해당 기간에 부대 또는 사회에서 성 이슈가 발생했다면 대상자의 주요 심리적 상황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또한 성폭력 등의 위험 행동 목격과 개입은 국가와 군별 특성과 근무 지역, 군 신분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 특성과 부대 환경에 따른 성폭력 관련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D. H. Park, "sexual offenses in the workplace, Gender-equal organizational culture", *Gender Review*, (Winter), Vol.59, pp.32-39.
<https://www.kwdi.re.kr/publications/genderReviewView.do?idx=126764>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Sexual Violence Safety Survey Research, 2019-37, Seoul, Korea, pp.37.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18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2002, World Health Organization, pp.5-6.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42495/9241545615_eng.pdf?sequence=1 (accessed Oct. 5, 2023)
- [4] S. Conroy, A. Cotter, Self-reported sexual assault in Canada 2014, Statistics Canada, Canada.
<https://www150.statcan.gc.ca/n1/pub/85-002-x/2017001/article/14842-eng.htm>
- [5] S. H. Kim, J. Y. Choi, "The Effect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the Psychological Sequelae of Sexual Violence in Wom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3, pp.188-216, 2018.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8.38.3.188>
- [6] Y. R. Kim, M. S. Lee, H. Song, "A Study on the Response of Military Sexual Violence: Based on Big Data Analysis of Related Articles", *Industry Promotion Research*, Vol.8, No.4, pp. 131-137, 20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O03014218>
- [7] D. I. Lee,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Crime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13, pp.59-79, 2021.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8521757>
- [8] N. K. An, Military sexual violence, why won't it stop?, CBS nocutnews, 2021. July 5, [internet].
<https://v.daum.net/v/20210705171211410?f=p> (accessed Oct. 7, 2023)
- [9] W. K. Lee, 2022 State Administration Audit Issue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audit, were the points pointed out last year improved?, K-Health, 2021, June 4, [internet].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23> (accessed Oct. 8, 2023)
- [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9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Military,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Seoul, Korea, pp.597.
<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2785>
- [11] A. M O'Leary-Kelly, R. L. Paetzold, R. W. Griffin, "Sexual harassment as aggressive behavior: An actor-based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5, pp.372-388, 2000.
DOI: <https://doi.org/10.2307/259019>
- [12] H. M. Do, "Treat like a flower" case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military revealed by 6 female soldiers, huffingtonpost, 2021, June 10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03> (accessed Oct. 7, 2023)
- [13] V. L. Banyard, "Sexual violence: Current perspectives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Vol.361, No.1-2, pp.1-4, 2008.
DOI: <https://doi.org/10.1080/10852350802022225>
- [14] P. McDonald, S. Charlesworth, T. Graham, "Action or inaction: Bystander intervention i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27, No.5, pp.548-566, 2016.
DOI: <https://doi.org/10.1080/09585192.2015.1023331>
- [15] J. H. Yoon, Y. S. Joe, H. T. Kim, N. H. Kim, H. S. Ju, Workers at gym-relat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Survey on sexual violenc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9, Seoul, Korea, pp.200
https://www.043w.or.kr/www/downloadBbsFile.do?atc_hmfnlNo=26343
- [16] M. J. Lee, S. Y. Jeong, I. S. Kwon, Research on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2016,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pp.32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14959&no=1>
- [17] J. G. Kim, H. J. Lee, "Bystander intervention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 script-based approach" *Police Journal*, Vol.21, No.1, 125-160, 202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d=ARTO02698198>
- [18] G. N. Mujal, M. E. Taylor, J. L. Fry, T. H. Gochez-Kerr, N. L. Weaver, "A systematic review of bystander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Vol.22, No.2, online
DOI: <https://doi.org/10.1177/1524838019849587>
- [19] T. H. Witte, D. M. Casper, C. L. Hackman, M. M. Mulla, "Bystander interventions for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on college campuses: Are we putting bystanders in harm's wa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65, No.3, pp.149-157, 2017.
DOI: <https://doi.org/10.1080/07448481.2016.1264407>
- [20] S. K. Johnson, J. Kirk, K. Keplinger, Why we fail to report sexual harassment. Harvard Business Review, 2016, October 4, USA, pp.2
<https://hbr.org/2016/10/why-we-fail-to-report-sexual-harassment>
- [21] L. Savage, A. Cotter, Perceptions related to gender-based violence, gender equality, and gender expression 2019, Juristat.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 85-005-X.
<https://www150.statcan.gc.ca/n1/pub/85-005-x/2019001/article/00001-eng.htm>

- [22] H. K. Kamg, Y. A. Kim, "Witnessing Risky Behaviors in Workplaces and Predictors of Sexual Violence Awareness", *Inquiry*, Vol.59, No.1, 2022, online. DOI: <https://doi.org/10.1177/00469580221129927>
- [23] A. L. Coker, H. M. Bush, P. G. Cook-Craig, S. A. DeGue, E. R. Clear, C. J. Brancato, B. S. Fisher, E. A. Recktenwald, "RCT testing bystander effectiveness to reduce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52, No.5, pp.566-578, 2017. DOI: <https://doi.org/10.1016/j.amepre.2017.01.020>
- [24]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GEDI, Switzerland, p.2.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gender/documents/briefingnote/wcms_738115.pdf
- [25] S. Y. Lee, I. S. Kim, J. H. Ko, Revised Korean gender equality test development (II). Research report 2018,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Seoul, Republic of Korea, 2019, pp.vi-vii.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4142&no=1>
- [26] M. J. Park, N. M. Yang, M. S. Lee, "Valida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Scale for the college students", *The Women's Studies*, Vol.87 No.2 pp. 99-127, 2014. <https://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16638&no=1>
- [27]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91-215, 1977.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 [28] H. A. Kang, A. Y.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Self-efficacy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7, No.2, pp.263-283, 20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O01778785>
- [29] B. Latané, J. M. Darley, *The Unresponsive Bystander: Why Doesn't He Help?* Appleton-Century-Croft: New York, NY, USA, 1970.
- [3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9 Survey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Military, Annual Report, NHRCK, Seoul, Republic of Korea, 2020. https://www.humanrights.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068611
- [31] M. Carlson, "I'd Rather Go along and Be Considered a Man: Masculinity and Bystander Intervention", *Journal Men's Study*, Vol.16, Issue.1, pp. 3-17, 2008. DOI: <https://doi.org/10.3149/jms.1601.3>
- [32] A. F. Amar, M. Sutherland, K. Laugh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liefs Associated With Bystander Behavior and Sexual Assaul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Vol.10, No.2, pp.84-91, 2014. DOI: <https://doi.org/10.1097/JFN.000000000000024>
- [33] K. Yule, J. C. Hoxmeier, K. Petranu, J. Grych, "The Chivalrous Bystander: The Role of Gender-Based Beliefs and Empathy on Bystander Behavior and Perceived Barriers to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37, Issue 1-2, 2020. DOI: <https://doi.org/10.1177/0886260520916277>
- [34] C. H. Jung, H. J. Kim, T. K. Kim, S. H. Park, "Perception of women who claim sexual assault: The effects of agency and perceivers' gender",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6, No.3, pp.167~194, 2020. DOI: <https://doi.org/https://doi.org/10.20406/kjcs.2020.8.26.3.167>
- [35] H. M. Jeong, M. S. Jang, J. Y. Hang, H. J. Lee, Y. H. Lee, Y. J. Park, M. S. Kim, Research on the status of secondary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strengthening relief, 2015 Human Rights Situation Surve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Korea, pp.265-270. https://www.043w.or.kr/www/downloadBbsFile.do?atc_hmfnlNo=25229
- [36] A. N. Guiora, K. J. Ingle, "Militant or Bystander: How to Protect Democracy", *BYU Journal of Public Law*, Vol.33, Issue.1, pp.30-79, 2019. <https://digitalcommons.law.byu.edu/cgi/viewcontent.cgi?article=1564&context=jpl>
- [37] D. M. Casper, T. Witte, E. Gibson, E. McCulley, "I Pulled Them Apart and Told Them to Stop: A Mixed-Methods Examination of—Bystander Behavior, Preparedness, and Emotional Reaction", *Journal Interpersonal Violence*, Vol.38, 2023. DOI: <https://doi.org/10.1177/08862605221092071>
- [38] Gabjil119 & Public Worker Solidarity Foundation, Report on sexual harassment and harassment by office workers 2021,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ongGam. https://www.kpil.org/board_archive/20210201/
- [39] K. J. Holland, V. C. Rabelo, L. Cortina, "See Something, Do Something: Predicting Sexual Assault Bystander Intentions in the U.S. Military", *American Journal Community Psychology*. Vol.58, pp.3-15, 2016. DOI: <https://doi.org/10.1002/ajcp.12077>

김 영 아(Young A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재활간호, 호스피스 간호

강 혜 경(Hyekyung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4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및치매간호